

(parole)

()

(déréliction) (1912-1994)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parole)

가

:

I.	
II.	
III.	
IV.	

고대 로마법을 전공한 법학자인 자크 엘릴은 사회학자, 철학자, 신학자, 환경운동가, 프랑스 개신교 전국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저술을 남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중심축으로 삼아, 기독교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하면서 기독교인의 소명과 책무를 강조한다. 또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기술, 선전, 정치, 혁명, 대도시, 돈 등 현대 사회의 현상을 분석하고, 본래 모습에서 벗어난 기독교를 역사적 측면과 다양한 시각에서 설명한다. 따라서 엘릴의 연구 작업은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배치된 두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한 측면은 사회학적 연구와 기술에 관한 저서이고, 다른 한 측면은 신학적 연구와 성서에 대한 주석

1) 가
 ‘ (實在) ’ , , 가,
 가 가
 ,
 가
 ‘ , ’
 ‘ ’ ”
 ,
 가

이다.

본래 모습에서 벗어난 기독교는 기계 문명과 정보화로 인해 피폐된 사회와 세상을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독교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순응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러한 맹목적인 추종(追從)을 강조하면서 모순을 재생산해 내고 있다. 엘뤼는 그러한 기독교에 대해 "기독교적인 사회와 교회의 발달을 통해, 성서에서 우리가 읽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사회와 문명과 문화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Jacques Ellul, 1984: 9)"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다음 같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독교가 급속히 지속적으로 본래 모습에서 벗어나고 왜곡된 원인이 하나님의 돌아섬과 침묵 즉 '하나님과의 단절상태'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부활한 성자(聖子)와 자신의 영(靈)에 의해 자신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일의 영속성을 보장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모든 것이 결국 그렇게 빨리 지속적으로 왜곡될 수 있었을까? ... 성령이 기독교인 및 교회와 더불어 존재하고 또한 존재했다면, 우리는 그런 끔찍한 왜곡을 목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 그렇다면 하나님이 물러났고 침묵한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은 『잊혀진 소망』²⁾에서 언급하려고 했던 것이다.³⁾

엘뤼는 '하나님과의 단절상태'의 현상들 중 하나로 '말(parole)의 죽음'을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엘뤼가 주장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상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현상으로서 '말의 죽음'의 예들이 마태복음에 어떤 식으로

." (Jacques Ellul, 1988: 24)

2) 『 L'Espérance oubliée』 가

3) Jacques Ellul (1984), La Subversion du christianisme, Paris Seuil, 19.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1.

(1)

엘릴의 견해에 따르면 현 시대 또는 현 세상은 '하나님과의 단절상태'에 있다. 즉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돌아섰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자신의 운명에 내맡겨 두는 '하나님과의 단절상태'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두로부터 돌아선 것이 아니라, 아마 개인의 삶 속에서는 존재해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단절상태' 시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개인들에 의해 가깝게 체험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말(parole)이 어떤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게 한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병의 치유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적이 여전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복음서에 기록된 것과 비슷한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不在)는 집단적으로 체험된다. 하나님은 개별 인간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역사와 사회와 문화와 과학과 정치로부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상태'의 상황에 있는 것은 기독교 국가이고 교회이다.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이들의 개별적 경험이나 증언을 통해서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 뿐 아니라 그 증언은 들리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침묵한다. 그것은 하나님은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침묵과 어둠 속에 칩거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엘릴은 '하나님과의 단절상태'가 하나님의 말이 오늘날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그러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책임임을 강조한다.

엘뤼는 ‘하나님과의 단절상태’ 시대의 특징을 다음 같이 지적한다. 즉 인간이 어떠한 진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힘이 제어되지 않으며, 선과 악 사이의 혼동이 지속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려는 어떠한 욕구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는 죽어 있으며,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침묵한 채로 있다. 인간은 온갖 뻔뻔함을 드러내고, 온갖 공포를 경험한다. 고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고뇌만으로도 파멸될 정도로 고뇌가 커진다. 인간은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상태’ 시대를 자신 안에서 체험하며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엘뤼는 ‘하나님과의 단절상태’ 시대를 "그 시대는 우리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이 죽었다고 평가하는 시대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벗어나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냈던 개념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시대는 인간이 스스로를 성인(成人)이라고 오만하게 말하지만, 자신이 비참한 고아임을 발견하는 시대이다(Jacques Ellul, 2007: 727)."라고 표현한다.

(2) ‘ , ’

엘뤼는 ‘하나님과의 단절상태’ 시대에 대해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상황을 그 예로 든다. 구약성서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상태’의 가망성에 대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근본적인 두려움이 나타난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표현 중 "돌아서지 마십시오."라는 외침은 최상의 궁극적인 기도이다. 그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견뎌 내지만, 하나님이 돌아서는 것을 견디지 못함을 드러낸다. 즉 하나님이 돌아서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단절상태’를 예견하고 그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결정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은, 적(敵)이 존재하는 것도 적이 승리자라는 것도 아니고, 민족의 정치적 불행 또는 경제적 불행도 아니다.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그런 재난을 하나님의 분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abandon)의 탓으로 돌린

교회의 평범함과 메마름, 세상에 대한 추종, 기독교의 국가화와 대중화, 교회의 성공주의와 제도화 등이 제시된다.

(1) ‘...’

인간은 ‘닫힌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인간이 느끼는 윤희와 무기력의 원인이 사회 및 세상의 구조가 점점 더 엄밀해지고 고정되는데 있다고 엘렐은 파악한다. 또한 닫힌 세상 속에서 ‘비합리의 폭발’ 역시 ‘하나님과의 단절상태’의 현상으로서, 그런 비합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 인간이 체험하고 느끼는 것 사이에 있는 모순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불안전(不안전)에 대비하려고,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인 행위들인 온갖 종교들과 신심들⁴⁾에 뛰어든다고 엘렐은 지적한다.

4) ‘...’ ‘...’ 가 , ‘...’ ‘...’ (信心) 가
 "(Jacques Ellul, 2006: 166)"
 가 , 가 가
 "(Jacques Ellul, 1987: 194)"
 (異敎化) 가 (Jacques Ellul, 1984: 51)"

‘뒤바뀐’은 원래의 의도가 그 반대되는 것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즉 뒤바뀐은 어떤 것이든 조금이라도 성취되면 원래 의도했던 바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음을 말한다. 뒤바뀐의 현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은 ‘가치들의 변질’인데, 그것은 모든 분야에서 어떤 상황이 뒤바뀐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행하는 바를 정당화하려고, 가치의 의미를 뒤바꾸며 예전 가치를 사용한다. 자신이 하는 일과 주변의 일을 판단하는 고정된 지표(指標)가 가치들의 뒤바뀐을 통해 인간에게서 사라진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과 악을 분리할 명확하고 확실한 판단기준이 없어진다. ‘가치들의 변질’ 또는 ‘가치들의 뒤바뀐’이 ‘말의 죽음’으로서 ‘언어의 위기’라는 현상에 부합된다. 언어의 위기는 언어의 내용에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특징지어지고, 언어의 붕괴로 연결된다. 엘뤼는 하나님을 침묵하는 것을 언어의 위기로 간주하는데, 인간 언어의 위기가 ‘하나님과의 단절상태’의 증거라는 것이다.

(2) ‘ ’

엘뤼는 인간을 불모상태로 이끌어가는 다양한 경로인 마법적인 것으로 회귀, 경멸, 의심, 조롱 등을 ‘하나님과의 단절상태’의 징조로 제시한다. 인간은 불안정하고 복잡한 미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미래를 붙잡으려고 애를 쓴다. 그 때문에 인간은 미래를 밝히거나 미래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마법적인 것에서 기대하면서, 미래를 드러내고 보장해주는 마법사나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를 향해 달려든다. 엘뤼는 이 시대의 인간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토록 다른 사람을 경멸했던 적이 없었다고 간주한다. 인간은 정복하거나 지배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면적으로 파괴하며 사물로 취급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타인을 영적으로 파괴하여 부정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엘렐은 ‘경멸’ 과 다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람을 짓누르는 ‘의심’ 을 이 시대의 현상 중 하나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어떠한 비판 정신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것이 거짓이라 판단하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그것은 진리가 된다는 것이다. 엘렐은 경멸과 의심의 당연한 결과였던 ‘조롱’ 은 어떤 것에 대한 날조를 전제로 한다고 지적한다. 다수에 의해 공격을 받는 사람은 여론에 의해 만들어진 조소와 치욕 전체를 짊어지는데, 그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 자로 선정된다는 것이다.

(3)

엘렐은 교회가 성령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이지만, 성령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곳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끔 만드는 잘못된 일반적인 흐름에 주목하면서, 몇 가지 흐름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과의 단절상태’의 징조로 제시한다. 그것은 교회의 평범함과 메마름, 세상에 대한 추종, 기독교의 국가화와 대중화, 교회의 성공주의와 제도화 등으로 나타난다.

엘렐은 미지근함과 무력함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평범함’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협력할 뿐 아니라 양심과 타협하는 온갖 행동을 받아들이는 데서 기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평범함이 교회에 만연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잘못도 아니고 특별한 죄악도 아니다. 그 대신 그런 평범함이 ‘하나님과과의 단절상태’에서 기인된 것으로 엘렐은 파악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과의 단절상태’의 징조로서 ‘메마름’은 기독교적인 증언이 효력이 없고 기독교적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엘렐은 성령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증거로서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무관심을

들 뿐 아니라, 다음 같은 두 사실을 제시한다. 첫째 종교적 정신의 증가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 지식인들에 의해 시도된 언어와 성서해석학에서 탐구이다. 엘렐은 그 예로서 성서 해석에 사용되는 구조주의 언어학을 드는데, 그것은 성서 본문의 의미를 없앨 뿐 아니라 나아가서 성서의 전체적 의미를 제거한다고 지적한다.

세상에 부합하는 교회의 경향으로서 ‘세상에 대한 추종’의 주된 양상은 교회의 성공주의와 제도화, 기독교의 국가화와 대중화, 교회의 타협과 세상에 대한 정당화로 나타난다. 따라서 엘렐은 다음과 같은 때를 교회가 계시로부터 크게 벗어나고 협잡을 하는 때로 간주한다. 즉 교회가 인간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축복하느라 시간을 보낼 때이고, 또한 교회가 인간들이 올바른 길에 있으며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입증하려 다갈 때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로부터 돌아선 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엘렐은 "모든 교회들은 교묘하게 국가의 권위를 존중했고 그 권위를 흔히 지탱했다. 또한 추종(追從)을 주요한 덕목으로 만들었으며, 사회적 불의들 및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용인했다(Jacques Ellul, 1998: 15)."고 하면서, 교회가 사회적인 흐름이 됨으로써 타협을 행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그런 타협과 정당화를 통해 교회는 세상의 의지를 표현하는 형태들 중 하나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교회의 도움을 받고, 결국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활동력을 더 이상 나타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권력과의 결탁에서 비롯되는 ‘기독교의 국가화’는 교회가 세상에서 권력을 대표하는 모든 것과 일종의 동맹을 맺기를 원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다음 같은 확신에 기초한다. 곧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의 권력들이 정복될 수도 있다는 확신이고, 또한 복음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 권력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확신이다. 그러나 본래의 의도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권력에 의해 침투되고 권력의 부패에 의해 진리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것은 교회라는 것이다.

‘기독교의 대중화’는 교회의 성공을 통해 또한 권력을 잡은 사회 계층과 교회사이의 결탁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은 ‘교회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설명된다. 대량으로 증가하는 신도들을 받아들일 교회의 방식을 찾아야 했으므로 대중 교회가 시작된다. 그래서 신도들을 이끌고 올바르게 성서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제들이 필요했던 것은 물론, 사제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며 교육할 고위성직자들이 필요했으므로, 교회의 계급제도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교회는 관리해야 할 부(富)의 문제와 함께 신자의 숫자 문제와 권력과 관계의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회 제도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사실이고, 국가 제도에 의해 오염되어져 만들어진 조직이란 사실이다. 결국 ‘기독교의 대중화’를 통해 계급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제도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며 강화된다는 것이다.

- (parole)

1. (parole)

(1) (parole)

학술적 연구들을 통해 언어에 대한 분석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언어는 인간과 과학과 사회의 중심에 위치하여 온갖 성찰의 주요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런 치밀한 연구들은 거의 전적인 형식주의로 반드시 귀결된다고 엘릴은 강조한다. 결국 언어의 위기는 언어의 내용에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데, 그것은 언어의 붕괴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엘릴은 우리가 기술 사회 속에서 단어들이 더 이상 말(parole)이 되지 못하는 언어의 비극적

위기 한가운데에 있다고 파악한다. 또한 언어의 위기가 존재하는 것은 많은 이유들에 기인하지만, 그것이 결국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부재에서 나온다고 지적한다. 언어 분석에 있어 현재의 극단적인 동향은, 언어에 진정한 자율체가 있고 인간은 일종의 대면인일 따름이라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엘뤼은 그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언어에 대한 다음 같은 부정적인 분석을 예로 든다.

실제로 말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언어는 사회적 맥락이 담긴 의미와 내용과 통사(統辭)와 구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말해지는 것은 언어이다. 언어는 다른 구조들 중 하나의 구조이고, 구조로서 스스로 작동한다. '내가 말할 때, '나'는 어떤 것을 말한다는 환상을 가진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언어가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말한다."라고 하지 말고, "그것이 말한다."라고 해야 한다. 그런 작용 속에는 말하는 주체가 없다. 마찬가지로 담화(discours)가 전해지는 사람도 '너'가 아니다. 그 사람 역시 의사소통 체계 안으로 들어온다. 언어 관계 속에는 이웃이 없고, 작동하는 구조의 두 요소만이 있다.⁵⁾

만일 위와 같은 분석이 정확한 듯이 보인다면, 그것이 다음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엘뤼은 간주한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만남의 부재 및 '나'와 '너'의 부재라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위치한 사물들의 세계 속에서, 사물화(事物化)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뤼은 언어가 그렇게 되었다면, 더 이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전할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내'가 소리 내는 단어들은 말이 될 수 없다. 메시지가 또는 말이 있으려면, 말하는 자가 자신이 말하는 그 순간 자신의 인격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따라서 말하는 자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아무 것도 말할 것이 없고, 듣는 자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아무 것도 받아들일 수 없음이 현재 언어가 처한 위기라는 것이다.

5) Jacques Ellul (2007), *L'Impossible prière, Le défi et le nouveau*, Paris La Table Ronde, 691.

또한 엘뤼엘은 말이 인격(personne)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즉 말은 자체의 말 속에서 전체적으로 취해진 활동 중인 인격이 더 이상 아니라, 그와 반대로 그 인격을 은폐하는 수단이요 스스로를 숨기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은 자아(soi)의 표방이나 자아의 드러냄이 더 이상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거하지 않은 순수한 소리가 된다. 결국 어떠한 인간도 실제로 말의 위기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지만, 말의 위기를 아주 잘 체험하고 있다. 물론 인간은 분명히 그러한 언어를 늘 사용하지만, 그것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라는 것이 엘뤼엘의 견해이다.⁶⁾

(2) (parole)

엘뤼엘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을 언어의 위기로 간주한다. 즉 인간 언어의 위기가 ‘하나님과의 단절상태’의 증거라는 것이다. 엘뤼엘은 언어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조적인 분석 및 기호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그리고 언어를 기호체계와 구조로 고찰시킬 때, 나타나는 문제도 지적한다. 그 문제는 무엇보다 언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의사소통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호들이 더 이상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깊고 교묘하게 기호들의 체계가 분석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죽은 도구에 가치를 다시 부여하려고 몹시 애쓰기 때문에, 기호들의 체계는 분석된다. 따라서 인간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의미를 체계로 대체하는 것일 따름이다.

6)

가 가 ,
 . " 가 가
 가 , 가
 . 가 가
 . 가
 가 , 가
 (Jacques Ellul, 2004: 39)."

구조에 대한 그런 연구는 어떻게 그러한 것이 작용하는지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런 연구를 통해서 언어가 작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언어가 작용한다는 것은 곧 의사소통 수단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진리의 전달체가 되는 것이다. 또한 진정한 의사소통이란 인간 자신의 언어가 참된 정보를 다른 언어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진정한 의사소통이 하나님의 말(parole)인 메타언어⁷⁾로부터 나오곤 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⁸⁾

엘뤼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가 오직 하나님에 대해 말하도록만 예정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인간의 언어가 오직 설교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만 예정되어 있지도 않다.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 위에만 그 근거를 두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평범한 언어가 어떤 것을 담아 옮기고, 창조와 의사소통의 경로가 되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때이다. 즉 언어가 더 깊은 실재 위에 그 근거를 둘 때이다. 또한 존재들 사이의 더 근본적인 관계 위에 근거를 둘 때이다. 그 실재와의 관계 덕분에, 언어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실재 및 관계는 인간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이다. 간혹 하나님이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인간은 그러한 언어를 거부한다고 엘뤼는 지적한다.

엘뤼는 구조화되고 닫혀진 자신들의 언어 체계를 세운 유대인들이, 하나님

7) (métalangage) 가

8) , 가
" , 가
가 (Jacques Ellul, 2004: 98)."

의 말을 담은 언어인 예수의 언어를 듣지 못할 뿐더러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그 예로 든다. 즉 "왜 당신들은 나의 언어(langage)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당신들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마귀를 아버지로 두었습니다."라고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말한다(요한복음 8장 33-34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고 자부하고, 결국 바깥에서 생겨난 말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물론 예수에 의해 여기서 공격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이 드러내는 태도이다.⁹⁾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부자(父子)관계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언어를 만든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그 자체 안에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자유와 진리를 선포하려 올 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담은 언어인 예수의 언어를 이해조차 할 수 없다.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 체계도 자체로 충족되고 일관성 있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엘릴은 간주한다. 하지만 그런 의사소통 체계는 실제로 비(非)의사소통의 동인(動因)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인간들 사이에 분열의 증거이자, 서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증거이다. 즉 하나님의 말과 관계가 단절될 때, 인간들 사이에 의사소통은 반대의 뜻과 오해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역시 침묵한다는 것이다.

9)

" (3:9).

2. (parole) 10)

위에서 제시된 ‘하나님과의 단절상태’의 현상으로서 ‘말의 죽음’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parole)의 강생(降生)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와 진리의 말을 제시하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즉 유대인들은 불충분하고 그 자체로 단쳐진 실체로서 형성된 언어의 존재에 의해, 하나님의 말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 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에게 데려오자, 예수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안심하라.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중풍병자에게 말한다. 그러자 몇몇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라고 속으로 말한다. 예수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서 "어찌하여 당신들은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가?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쉽겠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리고 예수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덧붙이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한다(마태복음 9:1-6).

예수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인 줄을 모르는 율법학자들은 예수의 말에서 신성 모독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예수가 그런 말을 한 목적이 예수 자신이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데도, 율법학자들은 그 점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이 자신들 앞에서 선포되고 있음에

10)

‘La Bible par Louis Segond’

도 불구하고, 구조화되고 단쳐진 자신들의 언어 체계 속에 갇힌 율법학자들은 예수의 말을 듣지 못할뿐더러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가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는가?"라고 제자들에게 묻는다. 예수는 그 말을 듣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당신들은 가서 '나는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호세아 6:6)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한다(마태복음 9:10-13).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타내는 의문은, 자신들의 태도와 예수의 태도가 전적으로 상반되는데서 기인한다. 즉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며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예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린다는 것이다. 또한 예수가 '나는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경건이나 제사보다 죄인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은 더 원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물론 직접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¹¹⁾,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해 버린다. 즉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준수와 소위 경건한 생활과 제사 의식에 결부된 언어 체계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말로서 외적으로 돌발하여 자신들에게 제시될 수 있는 어떠한 진리의 말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

11) 가
" .
" ,
" .
" .
(9:32-34).

안식일인 그 날 예수가 회당에 들어가자, 거기에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라고 예수에게 묻는다. 예수는 "만일 당신들 중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끌어 내지 않겠는가? 하물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한가!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고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준다(마태복음 12:9-13).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단지 안식일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서 예수와 바리새파 사람 사이에 진정한 의사소통이나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을 담은 예수의 말이 진리의 말로서 그들 앞에 전해지고 선포되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 자체로 충족되고 구조화된 닫혀진 언어 체계 속에 갇혀 그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오로지 안식일에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옳다." 라는 예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 외부에서 생겨나고 전해지는 그러한 진리의 말을 듣기조차 할 수 없다.

(2)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은 "보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에게 말한다. 그 때 예수는 다윗이 농의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차려진 거룩한 떡 곧 진설병(陳設餅)을 받아 간 사건을(사무엘상 26:1-6) 예로 들고, 또한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만큼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들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을 반박한다. 그리고 예수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신들이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불순한 의도를 지적한다(마태복음 12:1-8).

당시에는 사람들이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곡식을 따는 것은 허용되어 있었지만, 안식일에는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후자에 저촉된 제자들을 비난한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떤 트집을 잡아 예수를 비난하고 나아가서는 예수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예수는 간파한 것이다. 따라서 예수는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자'일 뿐 아니라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의 말을 일축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자'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할 때,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예수가 "나는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라는 구절의 의미를 그들이 모른다고 지적하듯이, 그들은 전통과 율법을 고수하는데 전념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에게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는가?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인가?"라고 묻는다. 예수는 "당신들은 왜 당신들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해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그와 같이 당신들은 당신들의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대답한다. 또한 예수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여도 마음은 나에

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이사야서 29:13)." 라는 말을 인용하여 그들의 태도를 비판한다(마태복음 15:1-9).

전통과 율법을 고수하려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태도 역시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태도가 어떤 불순한 동기나 의도에 의해 변질되는 순간, 전통이나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상실되고 만다. 그것은 죽은 시체와 같이 아무 생명력 없이 존재함으로써 단지 어떤 것을 속박하고 엮어매는 것이 된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전통과 율법을 고수하고 거기에 엮매일 때, 그들은 어떠한 진리의 말도 파악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전통과 율법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뿐 아니라,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상태이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예배는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그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인 듯이 가르치는 잘못을 범한다.

(3)

예수가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자, 사람들이 놀라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후손 메시야가 아닐까?"라고 말한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헐뜯는다. 예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을 알고서, 자신의 기적이 성령을 통해 일어남을 강조한다. 예수는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망할 것이다. 어느 도시나 가정도 나뉘면,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사탄이 자신을 대적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당신들에게 온

것이다."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반박한다(마태복음 12:22-28).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원로들이 와서 예수가 무슨 권한으로 가르치는지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는지 묻는다. 하지만 예수는 세례 요한의 권한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즉 예수는 "나도 당신들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만일 나에게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라고 그들에게 반문한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권능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요한을 예언자로 생각하는 군중들이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의논한 후 어쩔 수없이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예수 역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선언한다(마태복음 21:23-27).

위의 내용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의 권능을 전혀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 즉 예수가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자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가 귀신 두머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비방한다. 그들은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예수가 누가 준 권한으로 가르치는지를 문제 삼는다. 백성과 군중들은 예수의 권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반면에, 비교적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에게 걸림돌이자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예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말로써 자신의 권능을 행하는 예수의 말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신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수의 선언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역시 침묵하기로 작정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예수는 예수 자신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예수는 바

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함부로 하는 말이 성령을 거역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무심코 내뱉는 사소한 말일지라도 그 말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즉 심판의 날에는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말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단죄받기도 한다는 것이다(마태복음 12:32-37). 예수의 권능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담은 예수의 말을 부인하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의 권능에 의해 일어나는 기적은 예수의 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의 그런 기적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부인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말이 된다. 따라서 성령을 거역하며 함부로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말의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심코 내뱉는 사소한 말일지라도 성령을 거역하는 말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의 날에는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말의 죽음’이 해소되지 않는 한,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4)

겟세마네에서 붙잡힌 예수는 율법학자와 백성의 원로들이 모여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간다. 대제사장들과 전체 의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예수를 고소할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왔으나 아무 증거도 얻지 못하던 중, 마침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그것을 삼 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말을 했다."라고 증언한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당신은 아무 대답이 없는가?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답변은 무엇인가?"라고 예수에게 묻는다. 예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다시 대제사장이 "내가 살아 있는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당신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라고 예수에게 묻는다. 예수는 "당신이 말한바 그대로이

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선언하는데, 이제 이후로 인자가 전능한 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자,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예언자 노릇을 해 보아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고 하며 조롱한다(마태복음 26:57-68).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삼 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고 하면서 예수를 모욕한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이 사람이 남들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를 당장 구원해 줄 것이다.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말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조롱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은 욕을 예수에게 한다(마태복음 27:39-44).

체포되어 끌려온 예수에 대한 그러한 조롱과 모욕은 예수의 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근본적으로 나온다. 즉 예수가 자신이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암시한 "성전을 헐고 삼 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함으로써, 그것을 예수에 대한 불리한 증언으로 삼는다. 그 뿐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에 예수가 그렇다고 하자,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것은 예수의 말이 진실한지 아닌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서,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예수를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라고 하거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를

믿겠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는 행위이다. 그러한 조롱과 모욕을 통해 예수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되고, 그들의 말은 예수의 말과 근본적으로 단절된다.

(5)

예수를 죽이려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의를 알아차린 예수는 거기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서 그러한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내가 선택한 종을 보이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을 것이고 꺾여가는 불꽃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의가 이기게 할 것이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소망을 걸 것이다(이사야 42:1-4)."를 이루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의 그러한 태도 및 위에서 인용된 성서 구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상태'의 현상으로서 '말의 죽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예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자 그들을 피하기로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그들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또한 예수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은 바로 예수 자신에 대해 증언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라는 당부이다. 그리고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으며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침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더 이상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과 관계가 단절될 때, 또한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역시 침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와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단절상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몇몇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기적을 보여 달라고 할 때, 예수는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대답한다. 즉 "악하고 지조 없는 세대가 기적을 보여 달라고 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기적이 없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단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한다(마태복음 12:38-41).

예수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명하려고 요나의 행적에 빗대어 자신이 사흘간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에게 기적을 보여 달라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요나보다 더 위대한 예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의해 단죄될 수밖에 없으며, 예수는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로부터 물러나 침묵할 수밖에 없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한 후, 그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준다. 총독 앞에 선 예수에게 총독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라고 묻자, 예수는 "네가 말한바 대로이다"라고 대답한다. 대제사장과 원로들이 예수를 고발하지만, 예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 당신을 고발하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는가?"라고 예수에게 말하지만, 예수는 총독이 매우 이상히 여길 정도로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마태복음 27:11-14).

대제사장과 원로들이 예수를 고발하는데도, 예수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로부터 멀어지는 인간의 모습은 예수의 그러한 침묵을 통해 잘 드러난다. 예수가 유

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멀리하고 그들에게 침묵한 것은, 그들이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권능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모욕한 데 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고 침묵함으로써 인간에게 유발된 ‘하나님과의 단절상태’는, 예수가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물러나고 그들에게 침묵한 것에서 유추될 수 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향해 드러내는 악의에 찬 비방과 적대감은 예수가 진정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서 물론 기인한다. 그 점과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예수의 말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선포되리라는 생각을 결코 할 수 없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문자화시킨 율법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면서, 자신들의 율법 지식에 의거하여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즉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이 예수를 통해 거기서 선포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왜 비유로 말하는지 물을 때, 예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마태복음 13:13). 다시 말해 그들은 스스로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으며, 마음 문을 닫고 깨닫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수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마태복음 11:25-26). 소위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롭고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이 들려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¹²⁾ "우리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평가하는 시대가 '하나님과의 단절상태' 시대이다" 라는 엘릴의 말처럼, 인간은 자신의 한정된 지식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판단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진정한 의사소통의 부재(不在)로 나타나는 '말의 죽음' 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곡해하고 그 말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걸림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한다. 문제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도 기독교와 교회 내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성서에서 하나님이 본래 드러내어 선포하려는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고, 설교자의 자의적인 취향에 따라 또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어 적당히 윤색되고 해석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문제이다. 더욱이 교회가 세속적인 성공과 권력을 지향하고¹³⁾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

12) "우리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평가하는 시대가 '하나님과의 단절상태' 시대이다" 라는 엘릴의 말처럼, 인간은 자신의 한정된 지식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판단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13) "우리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평가하는 시대가 '하나님과의 단절상태' 시대이다" 라는 엘릴의 말처럼, 인간은 자신의 한정된 지식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판단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13) "우리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평가하는 시대가 '하나님과의 단절상태' 시대이다" 라는 엘릴의 말처럼, 인간은 자신의 한정된 지식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판단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主義)

과 행동은 그곳에 있을 자리가 없다. 교회가 그런 것을 계속 추구하는 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걸림돌이 되므로 제거되어야하는 존재이다.

교회 내에서 그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일반화된다면, 과연 성령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곡해와 왜곡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로부터 돌아서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의 모습과 교회 내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미루어볼 때,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 만약 하나님이 교회로부터 돌아서서 침묵하고 있다면, 허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예배와 온갖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따라서 최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긴급한 기도는, 돌아서서 침묵하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향해 돌아서서 우리에게 말하도록 강하게 요청하는 투쟁적이고 끈질긴 기도가 아닐까?

Ellul, Jacques (1984), *La Subversion du christianisme*, Paris: Seuil,
 _____ (1987), *Ce que je crois*, Paris: Grasset & Fasquelle,
 _____ (1988), *Présence au monde moderne*, Lausanne: Presses Bibliques
 Universitaires,
 _____ (1990), *Propagandes*, Paris: Economica,
 _____ (1998), *Anarchie et christianisme*, Paris: La Table Ronde,
 _____ (2004), *L'Espérance oubliée*, Paris: La Table Ronde,
 _____ (2006), *La Foi au prix du doute*, Paris: La Table Ronde,
 _____ (2007), *L'Impossible prière, Le défi et le nouveau*, Paris: La Table
 Ronde.

(非) 가 .
 가 .
 (Jacques Ellul, 1990:
 253-254)."

Abstract

La mort de la parole dans
l'Evangile selon Matthieu

Sang Min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Selon Jacques Ellul(1912-1994), le temps présent ou le monde actuel est dans la dérélition. C'est à dire que nous sommes entrés dans le temps où Dieu s'est détourné de nous et se tait. Ellul désigne les phénomènes ou les signes qui dérivent de la dérélition, parmi lesquels la mort de la parole en est un. La crise du langage, elle se traduit par la mort de la parole. La mort de la parole se caractérise par le fait que le langage n'a pas de sens. Ellul considère le silence de Dieu comme la crise du langage. Autrement dit, la crise du langage humain, c'est la preuve de la dérélition. Que le langage fonctionne, c'est à dire qu'il devient le moyen d'une vraie communication et à la limite le porteur de la vérité. Le plus banal langage quotidien ne porte que quelque chose, ne transmet quelque chose, n'est voie de création et de communication que dans la mesure où il repose sur une réalité plus profonde, sur une relation plus fondamentale entre les êtres, grâce auxquelles il peut remplir cette fonction. Et cette réalité, cette relation, c'est la Parole de Dieu, adressée à l'homme.

Quand Dieu parle, parfois l'homme récusé ce langage-là. Comme cet exemple, Ellul cite les Juifs qui ont établi leur système clos et structuré. Ils ne peuvent même pas comprendre le langage porteur de la Parole de Dieu, le langage de Jésus. Lorsque la Parole de Dieu vient pour annoncer la vérité en même temps que la liberté, ils ne la reçoivent pas, parce qu'ils ont fondé leur langage en soi. Et quand l'homme récusé cette Parole de Dieu, alors aussi Dieu se tait. La mort da parole dans l'Evangile selon Matthieu, qui se traduit l'absence d'une vrai communication entre Jésus et les Juifs, provient du fait qu'ils ne reçoivent pas la parole de Jésus. En plus, les Juifs tentent d'éliminer Jésus qui est leur pierre de scandale, en se méprenant sur la parole de Jésus et en la déformant. Le problème c'est que ce phénomène existe encore dans l'Eglise. Si, de ce fait, Dieu s'est détourné de l'Eglise et se tait, il nous faudrait le combat de la prière avec lequel nous exigeons de Dieu qu'il retourne vers nous et nous parle de nouveau.

Mot-clé : la dérélition, la mort de la parole, la parole de Dieu, le silence de Dieu